

No.20161221-001

제목: 빛의 정원

저자: 요시카와 토리코

페이지수: 29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2월 18일



<내용소개>

고교 시절 친한 친구였던 다섯 명의 여자,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

중·고교 시절에는 '같이 다니는 친구'의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룹에서 배제되면 외톨이가 되어 학창시절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있을 때는 어쨌거나 즐거우니까, 웃고 떠든다. 물론, 졸업 후에는 어찌될 지 알 수 없다.

시즈, 노리코, 미치카, 리에, 마리나. 지방에 사는 사이 좋은 다섯 명의 여고생은 언제 어디서나 뭉쳐 다니며 '우리들이 최강!'이라고 외치며 놀았다. 막 졸업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지만, 각자의 길을 걸으며 점점 멀어진다. 졸업 2년 후인 1998년 2월, 한 달 전쯤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했던 미치카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무참히 살해되어 절단된 상태로 여기저기 유기된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36살이 된 '시즈'는 도쿄에서 작가 일을 하고 있다.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과거의 일을 완벽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왜 하필 미치카였을까, 혹시 자신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라도 미치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추적해 르포를 쓰려고 마음 먹은 시즈는 18년 만에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본가에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한편 누군가 페이스북에서 죽은 미치카의 이름으로 시즈에게 친구 신청을 걸어 오는데, 이건 대체 누구의 짓일까?

시점을 이끌어가는 시즈를 비롯해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속물적인 면을 드러낸다. 도시에서 살았던 시즈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노리코는 대학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결혼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이 따분하기만 하고 집안일도 육아도 귀찮아하며 인터넷에 빠져든다. 리에는 의도적으로 부유한 남성과 결혼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 블로그에 그 울분과 불륜 스토리를 털어놓고 술을 마시며 참는다. 단기대학을 졸업하고 엄마의 말에 따라 시청에서 근무하는 마리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미치카의 죽음은 충격적이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은 보편적이다. 졸업을 기점으로 멀

어진 친구들과 소외감. 나머지 4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예민했던 사춘기부터 이어지는 열망과 질투를 세심하게 묘사한다. 미스터리 요소가 긴장감을 높여준다. 우리는 평온한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던 체념과 위협, 쓸쓸함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간다. 이 소설은 그 감정들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저자소개>

요시카와 토리코

1977 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2004 년 <잠자는 공주>로 신조사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R-18 문학상>대상과 독자상을 수상했으며 단편집 《샤뵃》으로 데뷔하였다. 젊은 여성들의 세계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다. 작품 중 《굿모 에비앙》과 《전쟁의 걸즈 라이프》는 영상화 되었으며 《소녀병》은 화제가 된 대표작 중 하나다. 그 외 《미도리의 미》, 《나고야 16 화》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6122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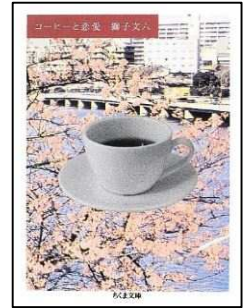
제목: 커피와 연애

저자: 시시 분로쿠

페이지수: 400

장르: 소설

출간일: 2013년 04월 10일



<내용소개>

쇼와 시대, 커피를 좋아하는 주인공 및 주변인물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쾌한 연애 소설

소설가 겸 극작가, 연출가였던 '시시 분로쿠'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다. 순수문학과 통속문학 사이에서 서민들의 생활상을 유쾌하게 담아내며 사랑 받았고,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다수의 소설이 영상화 되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1962~1963년 요미우리 신문에 《가부도(可否道)》로 연재되었던 글이다. 1968년 단행본화 된 것을 2013년에 《커피와 연애》로 제목을 고쳐 복간하였다.

TV가 등장한지 10년쯤 되었던 시절. 연속TV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안방극장에서 꽤 인기를 모은 43세의 중년 여배우 '사카이 모에코'. 사실혼 관계인 그녀의 남편은 8살 연하의 남편 연극작본가로, 본명 '토노모토 츠토무'에서 이름의 끝 글자만 따 '벤'이라고 불린다. 얼핏 보기에 이들은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잘 나가는 배우인 아내와, 예술성을 추구하는 오래된 극단의 각본가로 수입도 별 볼일 없는 남편. 나이차도 많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커피'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 모에코는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것이 특기이며, 벤은 커피를 맛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이 소속된 가부회(可否會)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에코의 능력을 인정하는 회장 '스가'는 그녀를 향한 연정을 숨기고 있다.

어느 날, 벤이 모에코의 커피를 형편없다고 말하며 평온한 일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결국 벤은 "생활 혁명을 하겠다"며 선언하며 모에코를 떠난다.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던 젊은 여배우에게 가 버린 것이다. 모에코가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는 의외의 호평을 받으며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얼마 후, 멋대로 떠났던 벤이 갑자기 모에코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며 상황은 더욱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일도 사랑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에코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소설 속 세계는 구(舊)와 신(新)의 가치와 문물이 공존하며 충돌하는 곳이다. TV는 아직 낯선 대상이며,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을 지킨다는 인식이 강하던 시기다. 여자에게 이기적으로 구는 남자들, TV를 통해 확산되는 상업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공의 연애담을 통해 전개된다. 모에코가 처지는 남이 보기에다 기가 막히고 안쓰럽지만, 작가는 유머 넘치는 문체로 경쾌하게 풀어내며 막힘 없이 술술 읽어나가게끔 한다. 웬지 모를 여유와 밝음이 느껴지는 50년 전

의 대중소설은 꽤 매력적이다. 당시와 현재의 '연애'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에코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목차소개>

커피와 연애 / '가부도'를 끝내고 / 해설

<저자소개>

시시 분로쿠

(1893-1969년) 본명은 이와타 토요오, 요코하마에서 태어났다. 소설가·극작가·연출가로 활동했다. 게이오기쥬쿠대학 문과예과를 중퇴, 프랑스에서 연극이론을 배워 일본의 연극진흥에 힘썼으며 키시다 쿠니오&쿠보타 만타로와 문학좌를 결성했다. 한편 서민생활의 일상을 위트와 유머로 담아낸 소설이 인기를 얻어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으며, 다수의 작품이 영상화되었다. 《자유학교》, 《오반(大番)》, 자전소설 《딸과 나》는 NHK 연속 TV소설 첫 번째 작품이 되었다. 《땡땡 전차》, 《마시고 먹고 쓴다》등 에세이도 많이 남겼다. 예술원상 수상, 문화훈장 수상.

No.20161221-003

제목: 사토 오오키의 '실패' 책

저자: 사토 오오키

페이지수: 200

장르: 자기계발,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12월 09일



<내용소개>

'넨도 (nendo)'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알려주는, 성공의 기반이 된 '실패 아이디어'를 통해 프로젝트의 본질과 가치를 발견하는 법

어떤 아이디어나 작품을 선보이고 설득시켜야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탈락', '불합격', '채용불가'와 같은 말들은 악몽이나 마찬가지로 다가온다. 지난한 수정과 고민의 길이 열렸음을 예고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와 주고 받는 파일의 제목이 '최종'에서 '최종_최종'으로, '최종_최종_최종본'으로 꼬리를 물고 확장되거나 '진짜 최종'같은 절실함 이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건축·인테리어·패키지 제작·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다루는 기업 <넨도(nendo)>을 이끌어 온 유명 크리에이터다. 그가 고객들에게 호평 받는 이유는 <숫자-밀도-스피드>의 삼박자를 고르게 갖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는 넨도의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다각적인 시점에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다. 형태·색상·소재 등 기본 요소는 물론 새로운 기구와 구조, 사용 방법, 패키지화 및 로고 인터페이스, 가게 앞에 전시할 이미지와 광고전략, 옵션까지 포함한 촘촘한 구성이다. 게다가 이런 내용들을 신속하게 내놓는다.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수준의 퍼포먼스가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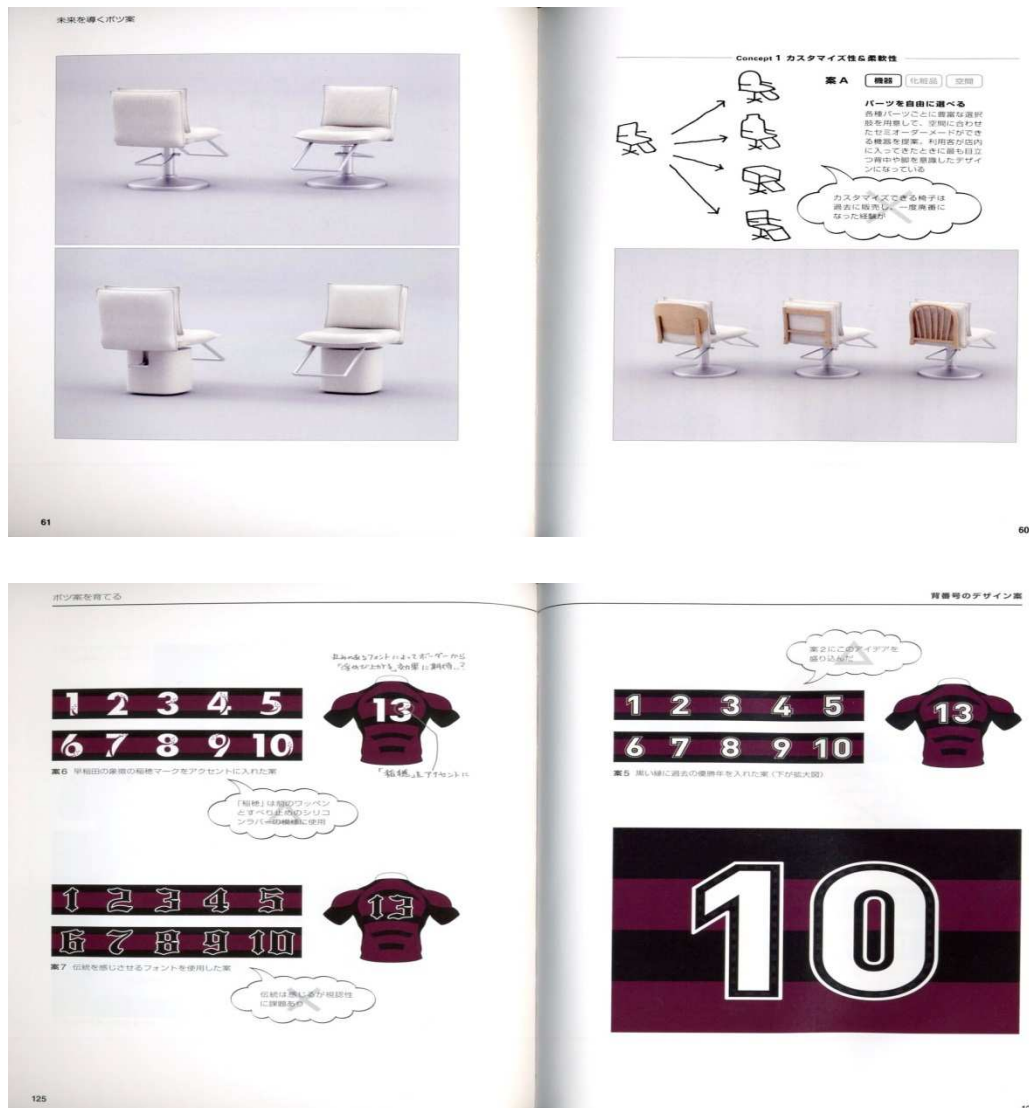
사토 오오키는 이 타이틀에서 자신이 일궈온 화려한 디자인 프로젝트들 밑바탕에 숨겨져 있던 핵심 키를 공개한다. 단, 천편일률적인 성공체험담일 것이라는 예상은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거절당하고 기각된 다수의 실패를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아이디어를 되살려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총 5개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담아 형태의 제약을 넘어서는 디자인, 1.5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주제로 삼는다. 2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집약하는 방법과 소비자 시점에서 컨셉을 뽑아내는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패를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다. 3장은 실패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연결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이며, 4장은 기존의 이미지를 전복시킴으로써 되살리는 기술이다. 마지막 5장은 실패를 성장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마음가짐에 대해 논한다.

저자는 그 동안 꿈꿨던 실제 디자인 및 시제품 이미지를 과감하게 공개하며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정말 궁금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가꿔 내는가'이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실패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 책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이미지>



<목차소개>

- 제 1장: 흠어지는 실패 아이디어
- 제 2장: 미래로 안내하는 실패 아이디어
- 제 3장: 실패 아이디어를 키운다

제 4장: 다시 살아나는 실패 아이디어

제 5장: 실패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저자소개>

사토 오오키

1977 년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2000 년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02 년 동 대학원을 수료, 디자인 오피스 '넨도 nendo'를 설립했다. 건축, 인테리어, 제작, 그래픽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다. Newsweek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 인>에 선정되었고 Wallpaper 지(영국) 및 ELLE DÉCOR 지를 비롯해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작품은 뉴욕근대미술관(미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영국), 퐁피두 센터(프랑스)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저서로는 《넨도 nendo 의 문제해결연구소》, 《속을 없애면 겉이 보인다》등이 있다.

No.20161221-004

제목: 금세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저자: 카타다 타마미

페이지수: 211

장르: 심리

출간일: 2016년 09월 16일



<내용소개>

감정에 금세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적절하게 화를 표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몇 년 전부터 '분노조절장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해 확산되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조절 장애라는 정식 명칭은 없는데, 조그만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며 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약한 자에겐 분노를 터뜨리고 강한 자 앞에선 온순해진다는 비아냥도 있지만, 분명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흥기로 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이 쌓이면 서, 마음에 남몰래 폭탄 하나쯤 품은 분노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저자는 요즘 유행하는 '화내지 않기', '감정적이 되지 않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자기의 감정 컨트롤 능력을 과신해 꺾 눌러두다 손 쓸 새 없이 터져버리는 것 보다, 평소에 조금씩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내는 편이 정신안정에는 훨씬 이롭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저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구체적인 '화' 통제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건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열거한다. 주위에 한 명은 있을 법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낸다. 2장에서는 이렇게 금방 감정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부모의 영향, 스스로를 과대평가 하는 성향, 현실 부정, 자기 정당화, 지나친 특권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3장에서는 ADHD, 경계성·연기성·자기애성 인격장애, 치매, 약물의 부작용처럼 감정 통제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설명한다. 이어 4장에서는 금방 감정적이 되는 사람들을 만드는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고찰한다. 후반부는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5장은 화가 난 사람에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6장은 화를 잘 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종종 벌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타인도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내면이 화로 가득 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본인도 모른

다는 점이다. 항상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고 별 것 아닌 일에 폭발하는데 근원은 그대로이므로 분노가 되풀이 된다. 화를 잘 내는 주변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스스로 화를 조절할 수 없어 괴로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다.

<목차소개>

제 1장: 감정적으로 변해야만 하는 사람

제 2장: 왜, 이런 사람이 생겨날까?

제 3장: 혹시 병일지도 모른다

제 4장: 금세 감정적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환경

제 5장: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제 6장: 처방전 - 잘 화내는 방법

<저자소개>

카타다 타마미

정신과 의사, 교토대학 비상근 강사.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오사카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프랑스 정부 유학생으로서 파리 제 8 대학 정신분석학부에서 라캉 파의 정신분석을 배우며 DEA(전문연구과정수료증서)를 취득하였다. 파리 제 8 대학 박사과정을 중퇴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임상을 맡기 시작했으며 그 경험에 기반해 범죄심리와 심리적 질환의 구조를 분석했다.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려, 사회의 기저에 잠재된 구조적 문제를 정신분석학적 시점에서 파헤친다. 《무차별살인의 정신분석》, 《타인을 공격해야만 하는 사람들》, 《프라이드가 높아서 폐를 끼치는 사람》, 《자기 사정을 떠맡기는 사람》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221-005

제목: 리더가 될 용기, Face it!

저자: 츠지노 코이치로

페이지수: 208

장르: 자기계발,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01월 21일



<내용소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를 “Face it” 하고, 리더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세계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다. 안전한 곳이 순식간의 테러의 대상이 되고, 의도치 않게 전쟁에 휘말리고, 말도 안 되는 비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다. 복잡한 이해를 둘러싸고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며 무엇이든 100% 확신할 수 없다. 인터넷 세상은 또 어떤가? 컴퓨터 화면과 익명성에 숨어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다. 앞에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이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격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기도 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용기는 없는 주제에 말이다.

소니와 구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리더를 경험한 저자는 “Face it” 을 외친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얻은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체험과 주변의 리더 경험담을 통해 배워나가려 한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한국과 일본의 지배적 흐름이었던 수직적 경영 체제, 구글을 위시한 수평적 경영 체제가 공존하는 시대다. 사내 직급을 폐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권한을 가진 리더로서 경영 이념을 실천해 나가는 후자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나온 수많은 리더십 이론은 수직적 경영 체제에서 성공을 경험한 개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경우가 많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다.

이 책은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들을 뒤로하고, ‘리더’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며 위험을 감내하며 스스로 리더가 될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반에는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기준이 될 리더십의 형태, 저자가 직접 본 세계 속 리더십의 특징, 샐러리맨 사회에서 리더라는 자리가 의미하는 바를 차근차근 짚어본다. 중반부에는 직원이 모두 리더가 되는 새로운 업무 스타일, 역사 속에서 찾아낸 닮아야 할 위인들을 설명한다. 후반에는 일본에서 찾아낸 훌륭한 리더 및 사업 성공의 사례들, 도전자와 지원자의 연결 고리를 확장해줄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소개한다.

시대가 계속 급격히 변하고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리더 상도 고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리더는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이다. 이리저리 헤매면서도 나아가려 하고,

한 번 정한 뒤에는 방향하면 안 된다. 저자는 자기의 경험과 주변의 사례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기꺼이 리더 자리에 나설 것을 격려한다. 리더가 갖춰야 할 자격과 용기를 알려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이제부터 스탠다드가 될 리더십 -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공통 감성

제 2장: 내가 본 세계의 리더십 - 일찍이 많은 리더가 있었다

제 3장: 샐러리맨 사회에서의 리더란? - 내가 뒤쫓은 리더의 "뒷모습"

제 4장: 전원이 리더가 된 회사 - 구글이 보여주는 새로운 업무 스타일

제 5장: 역사 속의 리더에게 배우는 자세 -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닌, 가까이 해야 할 존재로서의 위인

제 6장: 창업가로서 챌린지 리더의 본보기는 일본에 있다!

제 7장: 클라우드 펀딩으로 도전하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의 고리를 넓히다

<저자소개>

츠지노 코이치로

1957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1984년 게이오기주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를 수료하고 소니(SONY)에 입사하였다. 1988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대학원 전기공학과를 수료했다. VAIO, 디지털TV, 홈비디오, 퍼스널 오디오 등의 사업 책임자와 컴퍼니 프레지던트를 역임하고 2006년 3월 소니를 퇴사하였다. 이듬해 구글(Google)에 입사, 구글 일본 법인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2010년 4월에 구글을 퇴사하고 'ALEX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현재 동 사의 대표이사사장 겸 CEO로 재직 중이다. 2011년 6월부터는 'KLa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와세다대학 상학 학술원 객원교수, 6월부터 'AOI Pro.'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 IT종합전략본부 규제제도개혁분과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 중이다.

저서로는 《구글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소니가 가르쳐주었다》, 《성공체험은 필요 없다》등이 있으며 <주간 문춘>, 고단샤 <현대 비즈니스>, 마이니치 신문사 <WEBRONZA>에 연재 중이다.

No.20161221-006

제목: 일의 결과는 '시작하기 전'에 정해져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맥킨지식 업무 순서 세우기

저자: 오오시마 사치요

페이지수: 25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9월 28일



<내용소개>

일을 시작하기 전, 비효율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해야 할 맥킨지식 '업무 순서'

일에는 대부분 기한이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맡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업무가 여유 있는 자원 내에서 이뤄질 수도 없으므로 담당자가 요령껏 완수해내야 한다. 때로는 단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현재의 난관을 타개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종사해 온 컨설팅 업계는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하다. 클라이언트는 내부에서 고민해도 해답을 얻지 못한 안건을 컨설턴트에게 의뢰한다. 이미 내부에서 나왔을 뻔한 방법을 피해서, 참신하면서도 논리적인 방책을 빠르게 보여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업무 방식은 다수의 책과 강연을 통해 공유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일의 순서'에 초점을 맞춰, 제한된 시간 내에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한다. 맥킨지에 근무했던 저자 본인의 경험과 주변의 우수한 동료 및 상사, 비즈니스에서 만났던 엘리트 인사들에게 배운 점을 핵심만 압축하였다. 본문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노력 대비 큰 성과를 얻기 위한 <미니멈 사고>의 개요다. 앞으로의 내용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개념을 잘 이해해두면 좋다. 2장은 미니멈 사고를 실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가설>에 대한 내용이다. 가설은 곧 일의 방향이며, 논리가 촘촘하고 타당한 가설을 세움으로써 성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설 수립을 도와줄 발상 방법을 알아본다. 3장은 일을 순조롭게 끝나갈 토대가 되는 <전체설계>에 대해 해설한다. 말은 업무의 전체 상을 그리고, 누락 또는 중복 없이 진행 절차를 설계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아웃풋을 의식하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린다. 아웃풋은 일의 가치, 즉 이번 일을 통해 본인과 상대방(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5장은 이제까지 제시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미니멈 사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3개의 주력 포인트를 통해 설명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잡다한 정보와 작업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오감을 같고 닦는 습관을 소개한다. 각 내용마다 도표와 차트 예시가 적절하게 삽입되어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분명한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일의 절차'를 세우는 것이 낭비를 제거하는 진정한 계획이다. 이 책을 통해 맥킨지식 '일의 순서'를 익히고 실행함으로써 시간과 힘은 최대한 아끼고 성과는 몇 배나 향상되는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제 1장: 미니멈 사고 -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다
- 제 2장: 모든 일에 <가설>을 가진다
- 제 3장: <전체설계>가 최단 루트를 가리킨다
- 제 4장: <아웃풋>이 가치(Value)를 좌우한다
- 제 5장: 한 단계 높은 '순서' 기술
- 제 6장: 결과가 바뀐다! 오감을 예민하게 하는 습관

<저자소개>

오오시마 사치요

센쥬 휴먼 디자인웍스(Senju Human Design Works) 대표 이사. 이그제큐티브 코치, 조직개발·인재 육성 컨설턴트. 조치대학 외국어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 Fuqua School of Business MBA를 취득, 미국 시카고대학 대학원 인문과학학과 석사과정 수료하였다.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 Company)에서는 신규사업 기획 전략, 전사 전략 입안, 영업전략 입안 등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후 머서, (Mercer), 왓슨 와야트(Watson Wyatt), 글로벌 벤처 캐피탈, 산와중합연구소에서 경영전략과 인재 관리 컨설팅 및 벤처기업 지원을 담당하였다.

No.20161221-007

제목: 무인양품(無印良品, MUJI): 세계에서 사랑 받는 브랜드의 비밀

저자: 마스다 아키코

페이지수: 240

장르: 경제/경영

출간일: 2016년 11월 17일



<내용소개>

동서고금의 정보를 심플한 상품으로 형상화한다! 세계에서 사랑 받는 무지(MUJI)의 비밀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 MUJI)'은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사랑 받는다. 제품에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식이 없지만 가구와 잡화, 의류, 각종 집기류에는 공통된 이미지가 짙게 배어있다. 무인양품이 브랜드가 없음을 브랜드화하는 노브랜드(No-Brand) 열풍의 선두주자로 성공한 요인은 무엇일까?

2004년 이탈리아 진출부터 약 10년간 MUJI의 상품개발에 관련된 일을 해온 저자가, 본문에서 무인양품의 상품개발과 콘셉트를 '마케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1장에서는 MUJI의 핵심, 세계에서 사랑 받는 이유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인 '심플함'을 논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쾌적함을 추구하고 불쾌함은 피하려고 하며, 이는 국경이나 지역과 상관없다. MUJI는 애플이나 스타벅스와 달리 다양한 카테고리의 7000여개나 되는 품목을 취급하므로 어떤 소비자든 동일하게 연상할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물이 "심플하고 자연적인 생활용품"인 것이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상품들이 포지셔닝 하고 남은 여백 시장을 MUJI가 흡수하게 된다.

2장은 '이것이 좋다'가 아닌 '이것으로 괜찮다'를 노리며 기능들을 결합해 하나로 통합하는 '1+1=1' 방식, 공정을 재검토하며 염색 같은 것은 생략하는 방법 등 심플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3장은 MUJI에 들어있는 일본인의 자연관과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기존 이론을 반대로 적용하는 안티테제다운 면모를 찬찬히 뜯어본다. 가게에는 브랜드가 있지만 상품에는 브랜드가 없는,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을 디자인의 모토로 삼은 것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다. 보다 자세한 상품개발 과정으로 진입해 5장에서는 컨셉트 창조 과정을, 6장에서는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사고 방법을 소개한다. 7장은 MUJI가 타 국가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을 해설하며 이어 8장에서는 세계표준화를 향한 움직임을 살펴본다. 유럽의 독자적인 상품개발에서 일본의 집중 개발로 변해 온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9장에서는 저자가 직접 관여했던 MUJI 이탈리아 1호점 오픈 프로젝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한다.

여타 브랜드들이 유행을 따를 때, MUJI는 보편성을 쫓으며 계속 심플해졌다. 결국에는 그 "특징

이 없음"이 유일무이한 개성이 되었다. 이 책은 시간과 문화의 벽을 초월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무지(MUJI)의 지혜를 알려준다. 내부자로서의 경험과 객관적인 이론이 균형 있게 조화된 흥미로운 분석으로, 마케팅 시야를 넓히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동서고금의 지혜를 모아, 심플하게 지구대(地球大) 상품을 만들어낸다

제 1장: 시간을 넘다 - 〈그 외〉 포지셔닝

제 2장: 심플하게 하는 〈이것'으로' 괜찮다〉 사고법

제 3장: 일본문화와 무인용품의 조화로운 사상

제 4장: 반대되는 것을 한다 - 안티테제로서의 브랜드

제 5장: 컨셉트에서 창조한다 - 상품개발의 플랫폼

제 6장: "과연!"을 형상화한다 - MUJI식 디자인 사고

제 7장: 세계의 거리를 제로로 만든다 - 문화의 벽을 극복하는 방법

제 8장: 답지 않은 상품을 없앤다 - 세계표준화의 발걸음

제 9장: MUJ를 세계에 소개한다 - 이탈리아 1호점 프로젝트

<저자소개>

마스다 아키코

치바상과대학 인간사회학부 준교수, 조치대학 경제학부 경제학과 비상근 강사. 마케팅, 소비자행동론, 국제경영론을 담당하고 있다. 1996 년 와세다대학 상학부를 졸업하고 스미토모상사 근무를 거쳐 2003 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IULM University 에서 Master in Retail Management 를 수료하였다. 밀라노에 있던 2004 년, 현지 기업의 MUJI 상품 수입판매를 기획하고 그것을 계기로 MUJI ITALIA(밀라노)의 1 호점 개점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일본 귀국 후, 2005 년 양품계획에 입사하여 2014 년까지 MUJI 의 상품개발을 맡았다. 양품계획 재직 중에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석사 과정을 수료(MBA; Dean's List)하였으며 그 후 와세다대학 상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에서 마케팅이론을 연구했다. 2014 년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게임 체인저의 경쟁전략》이 있다.

No.20161221-008

제목: 괴로움·불안·분노를 줄이는 레슨

저자: 나카시마 미스즈

페이지수: 259

장르: 심리

출간일: 2016년 12월 15일



<내용소개>

괴로움·불안·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도와줄 <인지행동 치료법> 입문서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서만 이뤄지던 '심리치료'는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이 심리 치료법을 시도해보며 스스로 변화를 체험하려 한다. 조금 우울하거나 화가 치솟을 때마다 매번 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 중 일반인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고·신념·가치 등의 인지적 측면과 신체반응 행동적 측면을 고루 들여다보며 왜곡이나 오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인지행동치료법"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인지행동치료를 올바르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고민하기 일쑤인 사람,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항상 타인에게 휘둘리는 사람,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 불안과 공포 등의 감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 산만해서 눈 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인재 관리와 육성, 육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저자는 총 12장에 걸쳐 인지심리, 행동심리,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6장까지는 수많은 학자들이 인지의 왜곡과 수정 방법을 연구해 온 결과를 다룬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지치료의 창시자로 불리는 아론 벡의 인지모델, 생각의 밑바탕에 깔린 스키마(도식)나 비합리성을 가려내기 위한 하향식 화살표 방법, 추론 오류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4~7장은 신체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요법의 기초, 행동심리 파트다.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 역조건 형성과 노출 효과 등은 교양 수준으로 알아둬도 좋을 내용이므로 참고하자. 후반부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 기법과 사고방식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같이 제시한다. 공황 장애, 사회성 장애, 분노관리 및 상대방에게 단호하고도 부드럽게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마음챙김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문용어를 되도록 배제하고 일상적인 말을 사용했으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풍성하게 수록해 공감과 이해를 높였다.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나 인지 왜곡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이 살아온 역사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현재의 인지 및 행동상태에 주목해

기분상태를 개선시키거나 괴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을 통해, 적은 위험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법과 친해져 볼 것을 추천한다.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제 1장: 인지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 아론 벡(Aaron T. Beck)의 <인지모델>

제 2장: 신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 <하향식 화살표 방법>과 <행동분석>

제 3장: 사고방식의 버릇을 수정한다 - 전형적인 <추론의 오류>

제 4장: 행동을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 <행동실험>이라는 방법

제 5장: 왜 신체가 반응해버리는 것일까? - <고전적 조건형성>의 메커니즘

제 6장: 알고 있는데 멈출 수 없다 - <조작적 조건형성>의 메커니즘

제 7장: 불안과 어떻게 마주할까 - <역조건 형성 원리>와 <노출(Exposure)>

제 8장: 회피가 불안을 키운다 - <공황 장애>에 대한 접근

제 9장: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무섭다 -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접근

제 10장: 분노와 어떻게 마주할까(분석편) - <앵거 매니지먼트(Anger Management)>의 사고방식

제 11장: 분노와 어떻게 마주할까(해결편) - <어서티브 커뮤니케이션(assertive communication)>의 효과

제 12장: 구글이 채용한 집중력 향상 방법 - <마음챙김(Mindfulness)>의 실천

부록: 신념의 분류와 체크리스트

<저자소개>

나카시마 미스즈

임상심리사, 전문분야는 '인지행동요법'이다. 1978 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으며, 2001 년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를 수료하였다.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등의 근무를 거쳐 현재는 후쿠오카 현 직원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다. 후쿠오카 보호관찰소 등에서 약물의존과 성범죄 가해자의 집단인지행동요법의 관리자(Supervisor)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타인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 《나 다운 나, 안녕》, 번역서 《인간관계의 괴로움과 작별》등이 있다.

No.20161221-009

제목: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초역 “아들러의 말”

저자: 사이토 다카시

페이지수: 80

장르: 아동 인문

출간일: 2016년 11월 24일



<내용소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아이가 되도록 도와줄 심리학자 ‘아들러’의 메시지입니다.

한국에서 《미움 받을 용기》로 유명해진 심리학자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명입니다. 개인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이자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바라보고, 생활방식과 사회적 맥락 및 열등감을 통해 개인을 이해하려는 ‘개인심리학’을 제창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간결한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유명한 교육심리학자이자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가 아들러의 “용기의 심리학”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며 주체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줄 내용을 선정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곁들여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과정이 곧 ‘성장’입니다. 이 ‘성장’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해, 항상 도전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자신과 타인을 믿을 줄 아는 인간상을 제시한 아들러의 심리학이 유용할 것입니다. 예전의 실패에 대한 걱정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본문은 총 5개 장으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1장은 용기와 도전을 강조합니다. 겁먹지 말고 수 차례 시도하기, 변명하지 않기, 공부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기 등의 항목이 등장합니다. 2장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삼기, 보는 관점을 바꾸기 등을 설명하며 ‘이상적인 나’를 향해 노력하자고 이야기합니다. 3장의 주제는 타고난 개성을 살리며 목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발휘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4장은 타인에게 받기 보다는 먼저 주는 자세를 갖고 모두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5장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불안을 없애며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내용입니다. 모든 항목은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아들러의 말이 일러스트와 같이 제시되고, 뒤 페이지에는 저자의 해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아이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목차소개>

시작하며

알프레드 아들러 소개

제 1장: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제 2장: '되고 싶은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제 3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제 4장: 모두와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제 5장: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마치며

<저자소개>

사이토 다카시

메이지대학 문학부 교수 및 교육심리학자. 1960 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으며, 전문분야는 교육학·신체론·커뮤니케이션론이다. 저서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최고의 독서감상문》, 《호흡인간》, 《3 색 볼펜 활용 기술》,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 《잡담이 능력이다》 등이 있다.

No.20161221-010

제목: 모두 태어난다

저자: 키쿠치 치키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9월 11일



<내용소개>

모든 것이 태어나는 순간을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태양이 미소 짓는 어느 날, 땅에서는 조그마한 수많은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 주변에서 작은 벌레들도 태어났습니다. 어둠이 흘러가고 태양의 빛이 이곳 저곳에 닿기 시작하자, 저마다 지닌 다양한 색깔들이 다시 세상에 태어납니다. 창문을 통해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빛들이 이제 막 태어난 듯 반짝이며 들어옵니다. 새는 쉴새 없이 노래 가락을 만들어내고, 고양이는 구벽구벽 즐기 위해 자세를 잡습니다. 자동차 소리,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들이 시끌시끌 세상에 태어났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기도 태어납니다. 주변의 공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에게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자, 그 빈자리를 별들이 채우며 조용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포착하여 따뜻하게 표현한 책입니다. 물에 번진듯한 환상적인 수채 일러스트가 차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며, 해가 뜨고 소리가 나고 웃는 얼굴을 모두 '태어난다'고 비유한 점이 신선합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키쿠치 치키

그림책 작가. 1975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개인전을 할 때 손으로 만든 그림책을 발표하고 인기를 얻었다. 2012년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들고양이 이야기》로 데뷔하였다. 2013년 브라티슬라바 국제그림책원화전(BIB)에서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이》로 황금사과상을 받았다.